

李朝人物略傳 (七一) 正祖朝 (續)

；南景羲 純祖朝；金祖淳 洪奭周

金滢植(抄)

南景羲 字는 仲殷이오, 號는 痴菴이니 英陽人이라. 一日에 景羲ㅣ書를 看하더니 其妻가 糧絶함을 告하되 不應하고 또 家事를 말하되 不應하고 如前히 書를 看하거날, 五歲된 女兒가 在傍이라가 怒曰 『母氏는 엇지 痴人으로 더부러 말하시오』한대, 景羲 笑曰 『痴字가 名我固當이라.』하고 드디어 痴菴이라 自號하니라.

純 祖 朝

金祖淳 字는 士源이오, 號는 楓臯니 安東人이라. 正祖朝에 大提學을 拜하고 純祖 卽位함에 國舅로써 永安府院君을 封하니라.

洪奭周 字는 成伯이오, 號는 淵泉이니 豐山人이라. 奭周 爲人이 沈靜寡黙하고 文章이 渾厚典雅하더라. 少時에 書狀官이 되야 淸國에 使할새 路次에 平壤에 至하니 監司가 名妓 數輩를 揀選하야 奭周의 客館으로 遣하야 客懷를 慰安케 하얏더니, 奭周ㅣ 默坐看書할 뿐이라. 妓兒 서로 密語하야 曰 『昨年에 金校理는 入燕할 새 우리를 寵愛하더니 今番 書狀官은 少年風流가 업다.』 하는지라. 奭周 듯고 곧 千金을 주고 또 絶句 一首를 賦하야 敎坊에 送하니 其詩에 曰 『靑衫學士不風流, 紅袖佳人背面愁, 盛說往年金侍讀, 滿車香橘過楊州』라. 時人이 爭相傳誦하야 關西樂府가 되니라. 辛卯에 正使로 燕京에 赴하얏다가 大提學을 還拜하고 累轉하야 左議政이 되니라.

吳熙常 字는 士敬이오, 號는 老洲니 海州人, 大提學 載純의 子라. 遺逸로서 經筵官을 薦授하니라.

洪景來 關西人이라. 純祖 辛未 十二月에 景來ㅣ 禹君則 等으로 더부러 起兵하야 嘉山 郡守 鄭蓍를 殺하고 또 乘勝長驅하야 定州城을 入據하고 또 分兵四掠하니 關西 諸邑이 皆降하니라. 壬申 二月에 巡撫中軍 柳孝源이 大軍을 率하야 定州를 包圍하고 城北을 掘하야 隧道를 作하고 火藥을 埋하야 燃火

하니 火藥이 爆發하여 城堞이 崩壞하는지라. 景來—當先 督戰하다가 中丸하여 死하니라.

鄭著 字는 公勉이니 淸州人이라. 純祖 辛未에 洪景來 等이 嘉山을 攻陷하니 郡守 鄭著와 著의 父 鄭魯가 被執하여 不屈死하니라. 是役에 殉難한 者는 諸景彧, 白慶翰, 韓浩運, 許沆, 林之煥, 金大宅, 李長甲 等이 有하니라.

柳孝源 字는 斯伯이니 晉州人이라. 壬申에 孝源이 巡撫中軍으로 朴基豐을 代하여 洪景來를 討平하니라.

李書九 字는 洛瑞오, 號는 薑山이니 全州人이라. 少時로부터 詩名이 大振하더라. 時人이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及 書九의 詩를 編輯 註釋하여 名을 四家詩라 하고 世에 刊行하니라.

金邁淳 字는 德叟오, 號는 臺山이니 安東人이라. 邁淳의 文章이고 古雅典重하여 當時에 獨步가 되니라.

丁若鏞 字는 美庸이오, 號는 茶山이니 羅州人이라. 若鏞이 才分이 超絶하여 天文, 地理, 兵, 農, 律, 算, 書를 다 精通하고 또 經濟 大才가 有하니라. 小著는 牧民心書, 欽欽新書가 有하여 近世에 盛히 刊行하나니라.

憲 祖 朝

趙寅永 字는 義卿이오, 號는 雲石이니 豐壤人이라. 大提學, 領議政을 歷任하니라.

權敦仁 字는 景義오, 號는 彝齋니 安東人, 文純公 尙夏의 五世孫이라. 壬寅에 入相하여 領議政을 拜하다. 連山에 被謫하여 卒하니라.

金正喜 字는 元春이오, 號는 秋史니 慶州人이라. 文筆로써 名重 一世하니 其筆法을 秋史體라 稱하나니라.

申緯 字는 漢叟오, 號는 紫霞老人이니 平山人이라. 詩, 書, 畵로써 當世를 鳴하니라.

洪直弼 字는 伯應이오, 號는 梅山이니 南陽人이라. 遺逸로써 進하여 禮曹判書를 拜하니라.

李恒老 字는 而述이오, 號는 華西니 碧珍人이라. 遺逸로써 累徵不起하더라. 哲宗 壬戌에 賊招에 出하여 獄에 逮捕하얏다가 俄而오 釋放하여 承旨를 拜하니라.

奇正鎮 字는 大中이오, 號는 蘆沙니 幸州人이라. 遺逸로써 吏曹參判을 拜하다. 正鎮이 일즉 納涼私議, 猥筆 等 書를 著하여 栗牛의 理氣를 論辨하니라.